

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

올레 하이킹 코스의 유래

올레라는 말은 한국의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했습니다. 한국어로 길에서 집까지 연결된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의미합니다. 이 말이 제주도 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일련의 걷기 코스로 발전했습니다. 이 코스에서는 해변과 작은 마을부터 농장과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제주도 코스

제주도에는 현재 26 개의 걷기 코스(21 개의 정규 코스와 5 개의 보조 코스)가 있으며, 전체 길이는 425km에 달합니다. 코스는 난이도가 다양하여 하이커는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워킹 코스 패스포트는 제주 올레 안내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, 하이커는 코스를 따라 스탬프를 수집하고 모든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규슈 올레 코스

규슈 올레는 제주 올레의 자매 길인 규슈의 21 개 워킹 코스(2021년 2월 시점)의 이름입니다. 규슈 올레는 원래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스로 일 년 내내 규슈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각 코스는 제주 올레 조직이 엄격하게 규제, 감시하고 있으며, 공식 올레 코스로 인정받기 위해 코스는 알기 쉽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
우레시노 코스는 비단결 같은 감촉의 온천으로 유명한 우레시노 온천 거리를 중심으로 한 코스입니다. 알칼리성 온천은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, 특정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지역은 차밭으로도 유명하며, 우레시노 차는 일본에서도 최고의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.

우레시노 코스의 출발 지점은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모토 회관입니다. 이 시설에는 유명한 특산물인 요시다 도자기가 전시, 판매되고 있습니다.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지장상이 늘어서 있는 것으로 유명한 다이조지 절과 요시우라 신사가 있습니다.

동굴 안에서 1000년 전부터 살았다는 물의 신 '곤겐산'과 십삼불을 참배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. 그런 다음 아름다운 산이 배경으로 펼쳐지는 차밭 풍경을 바라보면서 언덕길을 올라 보즈하라 파일럿 다원으로 향합니다. 맑은 날에는 우레시노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의 원료가 배로 운반되는 아리아케 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서부터 코스는 구릉 지대로 진입하여 22세기 아시아의 숲, 1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'살아있는 화석' 메타세쿼이아(학명: *Metasequoia glyptostroboides*) 숲으로

이어집니다. 다음은 도도로키 폭포로 이어집니다.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자 사랑에 빠진 두 신이 현대인의 행위로 인해 헤어진 후에 다시 재회했다고 하는 전설의 무대입니다. 우레시노 코스는 지볼트의 족욕탕에서 끝나며, 이곳에서 하이커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온천수로 지친 발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.

주요 포인트

우레시노 코스는 전체 길이가 12.5km이며, 소요 시간은 4~5 시간입니다. 중급자부터 상급자 하이커 분들께 추천합니다. 경로에는 표지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. 머리 부분이 코스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 모양의 간세라고 불리는 표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무 화살표와 돌에 페인트를 칠한 화살표도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. 또한, 리본이 100~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이커가 코스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300m 간격으로 40 곳의 구조 지점(*Rescue Point*)이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정표는 모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파란색은 표준 걷기 코스를, 빨간색은 메인 코스에서 벗어난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